

## 點數制 經營評價法 少考

漢陽大教授·經博

公認會計士 李根熙

啓明大助教授

呂東吉

### <目次>

- |                    |                    |
|--------------------|--------------------|
| 1. 問題의 提起          | 2-3. 經營評價와 經營能力 判定 |
| 1-1. 問題의 研究方向      | 3. 企業內外의 評價比較      |
| 1-2. 點數制와 評價項目     | 3-1. 同一 企業內의 評價比較  |
| 2. 業種別 經營評價와 判定    | 3-2. 業種內의 評價比較     |
| 2-1. 評價項目에 대한 考察   | 4. 結論              |
| 2-2. 業種別 經營評價의 必要性 |                    |

### I. 問題의 提起

일반적으로 公認會計士 業務 또는 經營診斷에 있어서는 혼히 財務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良否를 판정한다든가, 아니면 推定財務諸表가 어느 정도나 달성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企業의 安定性 또는 企業의 永續的인 發展可能性 등을 판정해 보는 것이 보통이다.<sup>1)</sup>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競爭關係에 있는 企業間을 비교해 보므로서 分析對象企業의 戰略的이며 戰術的인 合理化方案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나, 이때 모든 分析技法이 傳統的인 經營分析法에만 執着되어서 새로움이 欠如되는 것과 같은 경향도 없지 않는 것이므로, 그 評價技法을改善해 보고자 試圖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經營分析은 分析數值만을 羅列하는 것으로 經營評價를 하는 것으로 錯覺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數值만으로, 어떤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經營活動의 良否를 제대로 評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分析結果에 대해서도 說得力を 갖출 수가 없을 것이므로, 이제 問題로서 提起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方法으로 經營狀態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것을 누구나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經營評價技法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이러한 課題 속에서 本少考에서는 經營評價를 위한 하나의 試論으로서 經營實態를 보다 的確하게 나타내 볼 수 있는 分析項目을 選別하고 그項目마다에 評價價值 즉 點數制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經營評價技法을 考察해 볼으로서

① 經營能力의 格附를 容易하게 하고,

② 現狀認識에 대한 目標를 判定.

하는 등 合目的的인 技法을 전개해 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sup>3)</sup>

그런데 本少考에서 考察해 보고자 하는 選擇項目이라는 것은, 本論에서도 다시 論考는 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것이므로, 만일 本少考를 實際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細部에 걸친 關聯項目을 비교하고 검토한 다음에 勸告될 수 있는 改善方案을 찾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1. 問題의 研究方向

本少考의 論考에 대한 問題意識을 効率化하기 위해서 經營分析技法의 類型에 대해서 그 뜻을 간추려 본다.

經營分析의 技法으로서는 財務諸表에 기재되고 있는 實數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實數法과, 比率을 찾아서 분석하는 이론과 比率法이 있는가 하면 複數의 財務諸表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比較法 등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나, 本少考의 論旨에서는 比較法을 주로 採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比較法에도 自己比較·相互比較·標準比較 등 세 가지가 있는 것인데, 自己比較法은 企業 내에 있어서의 財務諸表에 나타나는 實數 또는 比率을 數期間에 걸쳐서 비교하면서, 그것에 따르는 推移를 分析함으로서 企業의 財務狀態라든가 經營成果에 대한 良否를 考察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實數法에 있어서의 增減法이라든가, 比率法에 있어서의 趨勢比率法과도 뜻을 같이 하는 技法일 것이다.

한편 相互比較法은 同業種內의 다른 企業과의 관계를 相互比較하는 방법일 것이며, 標準比較는 같은 業種의 多數企業에서 부터의 財務諸表에서 찾아낸 標準比率과 受該企業의 分析比率과를 비교하는 방법인데, 本少考에서는 이상과 같은 比較法을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方法으로 經營評價의 綜合總點을 100으로 點數制에 의해서 論考를 전개해 가기로 한다.<sup>4)</sup>

### 1-2. 點數制評價項目과 研究範圍

經營分析項目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서 판정하기 위한 點數化에 대해서는 많은 研究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本少考에서는 A. Wall<sup>5)</sup>, J.B. Thurston<sup>6)</sup>, 千坂宰太,<sup>7)</sup> 그리고 研究者 자신의 觀點 등 네 가지를 主軸으로 해서 論考하기로 한다.

우선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은 研究者를 제외한 既存研究者들의 여러 가지 分析項目들 중에서, 서로가 공통되는 대표적인 財務比率項目과 回轉率項目을 풀어 본 것인데, 이 표를 다시 고쳐 보면 표 2와 같이 되는 것으로서, 세 사람

〈표 1〉 點數附與方式 (%)

項目 區分	附與者	Wall	Thurston	千坂
財務比率	流動比率	25	—	15
	當座比率	—	—	—
	現金比率	—	65	—
	固定比率	15	—	10
負債比率	負債比率	25	—	10
	拂入資本回轉率	—	—	10
	自己資本回轉率	5	—	10
	稼用總本回轉率	—	—	10
回轉率	賣上債權回轉率	10	35	10
	固定資產回轉率	10	—	20
	商品回轉率	10	—	20
	支給債務回轉率	—	—	15
計		100	100	

〈표 2〉 세 사람의 觀點 (%)

附與者 區分	Wall	Thurston	千坂
財務比率	65	35	50
回轉率	35	65	50
計	100	100	100

의 의견에는 많은 차이점, 즉 重視觀點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찾을 수는 있는데, 이러한 觀點의 차이는 綜合判定에 있어서 經濟環境, 다시 말하면 데프레이션, 또는 인프레이션 등에 적용할 수 있는 觀點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留意的인 觀察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財務比率項目과 回轉率項目만으로 綜合判定을 해 보고자 하는 사실에는 적지 않은 불안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물론 財務比率과 回轉率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이지만, 經營狀態를 올바르게 判定하기 위해서는 企業利益과 그러나 利益을 만들어낸 經營efficiency를 찾아 보아야만 비로소 的確한 判定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本少考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論考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本少考는 이제까지 回轉率에 있어서는 賣上高를 分子해서 計算하는 방식에서 賣上高 대신에 附加價值를 활용하는 効率項目으로 考察키로 그 방법을 바꾸어 보았으며, 또 企業利

益을 나타내는 經常利益을 사용한 分析値를 이용해서 業績項目으로 하면서 財務·効率·業績 등과 같은 세가지 領域에 相關되는 갖가지 分析項目을 摘出하여 ① 企業의 安全性, ② 經營効率, ③ 收益力 등을 綜合判定하는 한편 그 趨勢에 의해서 質的인 成長性을 察察해 봐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本少考에서는 問題點을 보다 合目的的으로 전개해 보기 위해서 표 3<sup>5)</sup>와 같은 評價項目을 마련해보았다.

〈표 3〉 本少考의 評價項目

財務項目	① 流動比率 ② 當座比率 ③ 固定比率 ④ 自己資本比率
效率項目	① 總資本投資效率 ② 他人資本效率 ③ 人件費效率
業績項目	① 總資本經營利益率 ② 賣上高經營利益率 ③ 經營安全率

## II. 業種別 經營評價와 判定

### 2-1. 評價項目에 대한 考察

流動比率인 경우에 있어서는 流動負債의 支給에 대응해서 流動資產이 어느 정도나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支給能力을 살피는 대표적인 것인데, 이 比率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安全性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流動資產中에는 이tron바 在物資產 등과 같이 換金化가 遷滯되는 것도 포함되고 있을 것이며, 現金·預金·預款·預金等과 같이 換金性이 있는 當座資產과 流動負債에 대한 對應ability을 분석하는 것에 의해서 當座의 支給ability, 즉 當座比率을 찾아 봄은 일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또 固定比率에 있어서는 自己資本과 固定資產을 對比해 보아서, 어느 정도나 自己資本이 固定되고 있는가를 찾아 보고자 하는 比率일 것인데, 이 비율은 財務의 安全性을 나타냄은 물론

이고 流動性까지도 나타내게 되는 것이므로 소홀히 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自己資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返済期間이 없을 것이므로 固定資產의 資金源泉으로서 아주 적합할 것이다. 또 自己資本에 대한 利利라고 생각할 수 있는 配當인 경우에도 利益狀況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임의로 올리기도 할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므로 支給에 따른 強制性이 없다는 점에서도 借入資金보다는 월선 유리할 것이다. 또 他人資本에 대해서는 擔保의 機能까지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安全性의 기반으로 될 것인데, 이러한 自己資本이 總資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自己資本比率인 것인데, 이것은 財務比率項目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지적될 것이다.

efficiency項目에 대해서는 產出된 附加價值에 의해서 效率測定을 하기로 했다. 附加價值는 賣上高라든가 生產高에서 外部購入價值를 控除한 正味價值인 것이다. 따라서 分子는 附加價值이고, 分母에는 總資本·他人資本·人件費 등을 설정키로 해 보았다.

그런데 總資本投資效率은 總資本自體의 生產效率을 측정하는 것이며, 他人資本效率은 總資本投資效率에 대한 일 맹이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企業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總資本의 구성을 있어서는 他人資本이 대체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自己資本보다는 他人資本의 效率을 측정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항목을 채용하는 것은 참으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固定資產效率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살펴보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實態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이 엿보이기 때문에 本少考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人件費效率이란 勞動이란 측면에서 效率을 찾아 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附加價值에 대한 人件費倍率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의 人件費에는 福利厚生費도 포함할 것인데, 얼마만큼의 人件費를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附加價值를 얻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같은 業種에 있어서 평균 이상의 賃金이 支給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때

의 比率이 높을 수록 效率的인 經營이라고 할 수 있게된다.

또 業績項目에 있어서는 經營利益을 갖고 分析하는 것으로 했다. 일반적으로 企業業績을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利益은 稅差減前利益인 것이나, 이에는 前年度의 修正損益 또는 特別損益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제외한 利益, 다시 말하면 經常利益이 期間業績을 올바르게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經常利益을 分子로 하고, 分母에는 投下總資本, 賣上高, 附加價值를 이용해 보기로 한 것이다. 投下總資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經營利益을 올리고 있는가, 즉 總資本經營利益率은 어떤가, 또 賣上高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經營利益이 있는가, 즉 賣上高經營利益率은 얼마인가, 그리고 附加價值의 몇 퍼센트를 利益으로 分配할 수가 있는가, 즉 經營安全率은 어떤가 등 세가지 항목을 분석하는 것에 의해서 企業成果를 명백히 알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택항목과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 이를 열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각기 10점씩의 비중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數字로 표시하기 위해서 分析比率에 係數를 곱해서 项目別評價點으로 했고, 그의 小計를 財務點, 效率點, 業績點이라고 이름했으며, 合計를 統合點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项目別評價點들

에 대한 計算式은 표 4에 일괄해서 요약해 보았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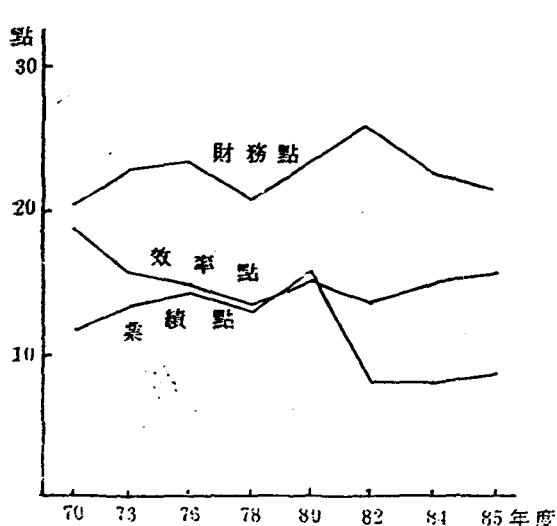
〈표 4〉 評價點數 計算方式

		點數	計算式
財務點	流動比率點	10	$\frac{\text{流動資產}}{\text{流動負債}} \times 5$
	當座比率點	10	$\frac{\text{當座資產}}{\text{流動負債}} \times 10$
	固定比率點	10	$\frac{\text{自己資本}}{\text{固定資產}} \times 10$
	自己資本比率點	10	$\frac{\text{自己資本}}{\text{總資本}} \times 20$
合效率點	總資本效率點	10	$\frac{\text{附加價值}}{\text{平均總資本}} \times 10$
	他人資本效率點	10	$\frac{\text{附加價值}}{\text{平均他人資本}} \times 5$
	人件費效率點	10	$\frac{\text{附加價值}}{\text{人件費}} \times 3$
業績點	總資本利益率點	10	$\frac{\text{經營利益}}{\text{平均總資本}} \times 50$
	賣上高利益率點	10	$\frac{\text{經營利益}}{\text{賣上高}} \times 100$
	經營安全率點	10	$\frac{\text{經營利益}}{\text{附加價值}} \times 50$

註：各項目의 最高評價는 10點, 最低評價는 點으로 함

## 2-2. 業種別 經營評價의 必要性

이상과 같은 論考에 입각해서 業種別로 企業評價를 試圖해 볼 것인데<sup>10)</sup> 이를 위해서는 우선



區分	年 度	建設業評價點(平均)								
		'70	'73	'76	'78	'80	'82	'84	'85	
流動比率點	5.2	5.4	5.6	5.7	5.8	6.0	5.6	5.4		
當座比率點	5.7	6.6	7.2	7.2	7.3	7.9	7.4	7.4		
固定比率點	6.0	7.6	7.3	7.3	8.0	8.4	7.4	6.9		
自己資本比率點	3.8	4.0	4.1	4.1	4.0	4.0	3.8	3.9		
財務點	20.7	23.6	24.2	23.3	25.1	26.3	24.2	23.6		
總資本效率點	4.7	4.2	4.4	3.4	4.8	4.7	4.8	5.1		
他人資本效率點	2.9	2.6	2.8	2.1	3.0	2.9	3.0	3.2		
人件費效率點	11.6	9.7	8.4	7.7	7.3	6.1	7.2	6.9		
效率點	19.2	16.5	15.6	13.2	15.1	13.7	15.0	15.2		
總資本利益率點	2.2	3.0	3.6	2.5	3.8	1.9	2.3	2.4		
賣上高利益率點	2.7	2.6	3.3	2.7	3.8	2.2	2.1	2.2		
經營安全率點	6.1	6.6	7.9	6.7	8.0	4.5	4.2	4.1		
業績點	11.0	12.2	14.8	11.9	15.6	8.6	8.6	8.7		
綜合點	50.9	52.3	54.6	48.4	55.8	48.6	47.8	47.5		

그림 1 建設業(資料로서의 業種平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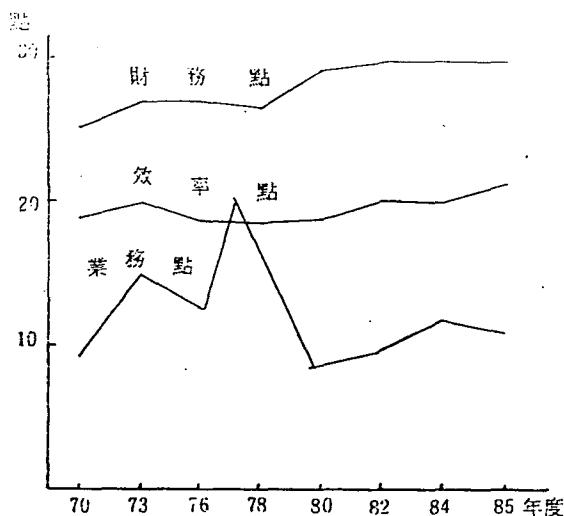


그림 2 製造業(資料로서의 業種平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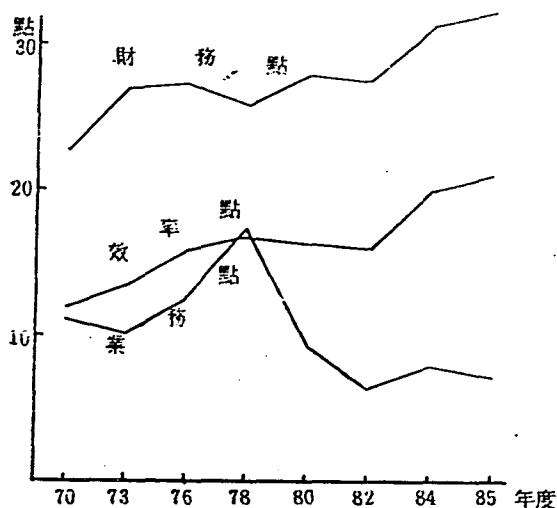


그림 3 都賣業(資料로서의 業種平均)

다음 그림 1에서부터 그림 8에 이르는 資料를 마련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 資料들 중에서 그림 1에서 그림 4까지는 各業種別에 대한 評價點과 그것에 대한 그래프를 만들어 본 것이다.

한편 이들 중에서 財務點인 경우를 살펴 보면 1979年 決算期分인 1978年度는 모든 業種들이 다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固定比率點과 自己資本比率點이 다같이 나빠지고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 중에서도 建設業을 제외한 다른 3個 業種에 있어서의 業績點은 上昇하고 있다. 그러나 1980年度에는 1976年度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것 보다는 회복되고 있어서 評價點을 높이고 있음을 찾을 수가 있다.

또 效率點에 있어서도 1978年度에는 제자리 걸음이나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에는 都賣業을 제외하고는 上昇傾向에 있음을 찾

어를 수가 있다. 특히 總資本效率點과 他人資本效率點의 伸張은 눈부신 바가 있으며, 減量經營을 經營重點으로 하면서 自己資本의 충실에 힘

쓰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業績點인 경우 1978年度는 建設業을 제외하고는 큰 폭으로 上昇하고 있다. 그러나 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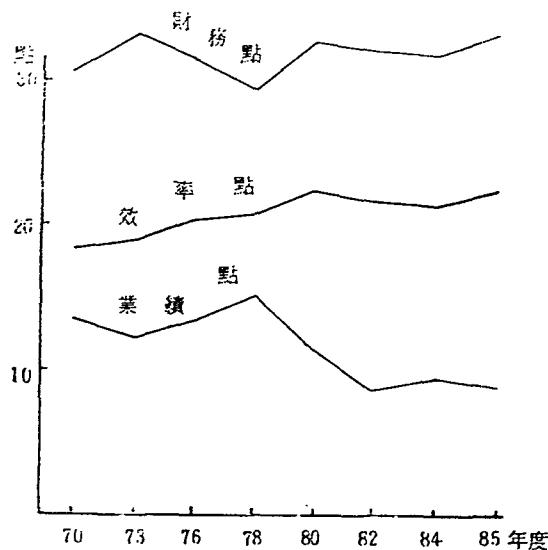


그림 4 小賣業(資料로서의 業種平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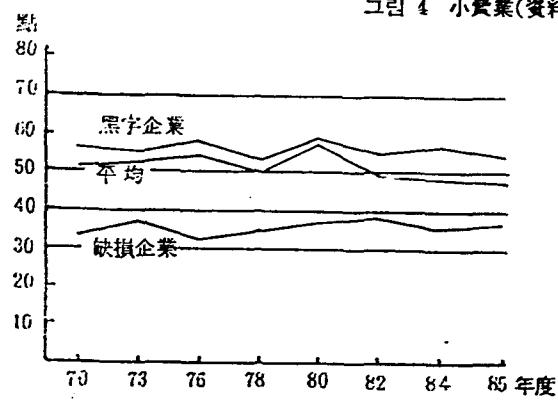


그림 5 建設業(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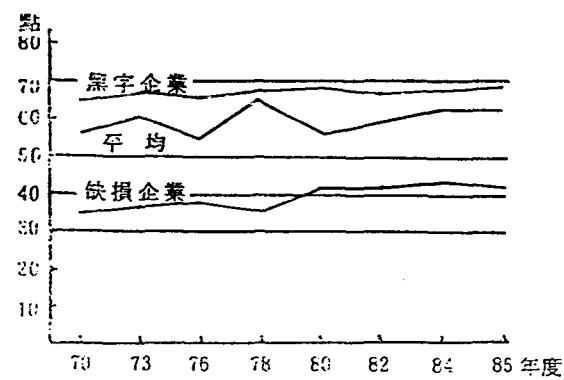


그림 6 製造業(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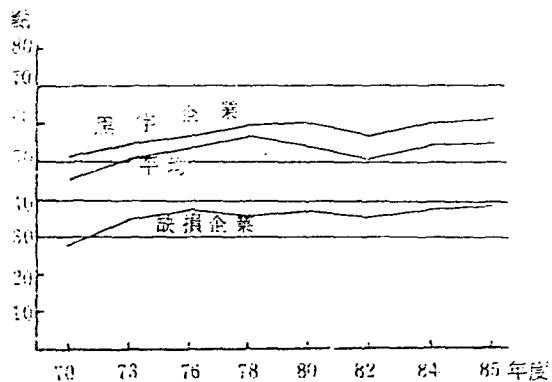


그림 7 都賣業(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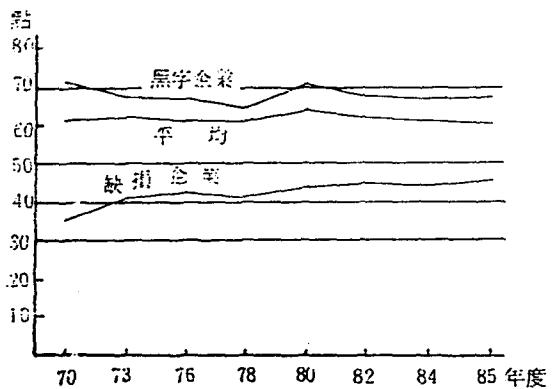


그림 8 小賣業(資料)

造業 및 都賣業은 1980年度와 建設業 및 小賣業은 1982年度 이후에 있어서의 業績點이 한자리에 그치고 있으며, 다만 製造業만은 1984年度에서부터는 두자리로 회복하고 있는 정도인 것이다. 1978년에서 1979년에 이르는 油類波動이企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큰 것으로 생각되나, 그것 이후에 있어서의 統合點伸張은 거의 없는 것으로서 바야흐로 低成長時代에 접어들고 있음을 엿보이고 있다.

### 2-3. 經營評價와 經營能力 判定

그림 5에서 그림 8까지는 各業種別로 黑字企業에 대한 平均과 缺損企業에 대한 平均評價를 나타낸 것이다. 黑字企業과 缺損企業을 비교해 보면 業績點에 차이가 보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드라도, 財務點에서는 3~9점까지나 되는 格差를 보이고 있으며, 效率點인 경우에도 一時期를 빼고는 黑字企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림

9의 綜合點을 그래프화한 것을 參照하면 한층더 명백해질 것이다.

黑字企業은 各業種이 다같이 50~70點의 범위로 옮기어 가고 있으며, 缺損企業에서는 28~45點의 범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黑字企業이라고는 하드라도, 글자 그대로의 優秀한企業도 있을 것 이지만, 미리 利益을 計上해 놓는 것과 같은企業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缺損企業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缺損을 보이고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며, 大幅의 赤字로 해서 頽死狀態에 있는企業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黑字企業에도 가령 ① 優秀企業, ② 優良企業, ③ 標準的企業 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缺損企業인 경우에도 ① 要努力企業, ② 要警戒企業, ③ 危險企業 등으로 分類해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分類에 입각해서 點數를 区分해 본 것이 표 5인 것이다. 문제를 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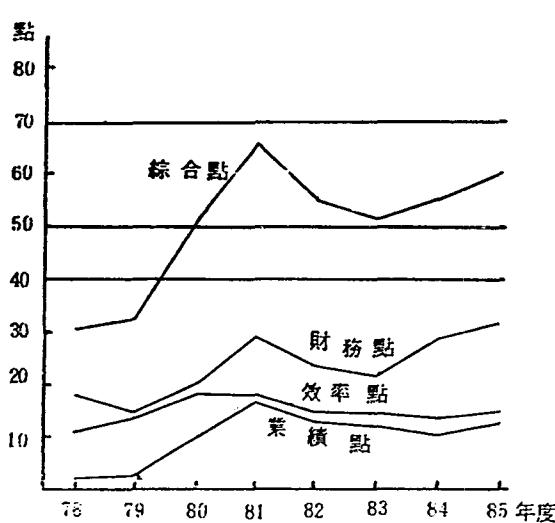
〈표 5〉 經營力水準判定表

經營力水準	點數區分
優秀企業	85點以上
優良企業	70點以上
標準的企業	50點以上
要努力企業	40點以上
要警戒企業	30點以上
危險企業	30點未滿

토해보기 위해서 全企業, 즉 黑字企業과 缺損企業의 平均點을 그림 1부터 그림 4에서 찾어 보

〈표 6〉 H社와 M社의 評價點

區分	會社名	H 社	M 社
流動比率點		10.0	2.0
當座比率點		10.0	3.9
固定比率點		10.0	0.0
自己資本比率點		10.0	0.0
財務點		40.0	5.9
總資本效率點		10.0	0.0
他人資本效率點		10.0	14.2
人件費效率點		7.0	4.5
效率點		27.0	18.7
總資本利益率點		10.0	0.0
賣上高利益率點		10.0	0.0
經營安全率點		10.0	0.0
業績點		30.0	0.0
綜合點		97.0	24.6



았더니 45~65點의 範圍가 있는데, 이것을 經營力으로 判定해 보면, 要努力企業과 標準的企業의 水準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本稿가 分析해 본企業들 중에서 評價點이 제일 높은 H社와 가장 낮은 M社의 評價를 정리해 본 것이 표 6인 것이다. 표 6에 따르면 総合點 97點인 H社는 内部留保과 資本金의 6倍이상이나 되는 말하자면 超優秀企業인 것을 알 수 있으며 M社는 25點으로서 總資本과 같은 범위의 累積缺損이 있어서, 바야흐로 頻死狀態에 있는 危險企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 III. 企業內外의 評價比較

#### 3-1. 同一企業內의 評價比較

그림 9는 本稿가 設定한 年商 30億원 規模의 部賣業으로서 A社라고 하는 企業의 1970年에서 1985년에 이르는 7個年間에 결친 決算의 評價인 것이다.

그림 9에서 보면 1970年度 決算에서는 要警戒企業이라고 判斷되고 있다. 그것은 資金의 으로도 아주 많은 압박을 받았을 것이며, 經營管理에 있어서도 前近代的인 不合理的인 것이 있을 것이다. 1981年度부터 本稿에서 提起했던 것과 같은 經營合理化에 의해서 1982年度의 決算에 있

A社의 評價點

區分	年 度	'78	'79	'80	'81	'82	'83	'84	'85
流動比率點		8.2	4.9	4.8	5.6	5.2	5.4	5.7	5.9
當座比率點		8.9	7.6	8.2	9.5	8.1	8.9	9.8	10.0
固定比率點		4.2	2.5	6.1	10.0	8.2	5.4	10.0	10.0
自己資本比率點		1.2	0.9	2.1	3.9	3.7	3.5	4.3	5.4
財務點		19.5	15.9	21.2	29.0	25.2	23.2	29.8	31.3
總資本效率點		2.9	6.1	7.9	1.0	5.1	5.1	4.7	5.3
他人資本效率點		1.6	3.2	4.4	4.3	3.1	3.1	3.0	3.6
人件費效率點		5.7	5.6	6.2	7.1	7.1	7.2	6.8	6.3
效率點		10.2	14.9	18.5	18.4	15.3	15.4	14.5	15.2
總資本利益率點		0.4	0.3	4.6	6.7	3.9	3.9	3.6	4.3
賣上高利益率點		0.1	0.1	1.0	1.7	1.3	1.3	1.3	1.5
經營安全率點		0.3	0.6	5.9	9.2	7.4	6.9	6.2	7.9
業績點		0.8	1.0	11.5	17.6	12.6	12.1	11.1	13.7
綜合點		30.5	31.8	51.2	65.0	53.1	50.7	55.4	60.2

그림 9 A社의 趨勢(資料)

에서는 標準的인 企業水準으로까지 向上시킬 수가 있었을 뿐 아니라, 1983年에는 65點으로까지 上昇되고 있다. 1984年度에는 事務效率化를 위해 倉庫로 쓰이던 곳을 약 1億원이나 투입해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綜合點에서는 53點으로까지 떨어지기는 했으나, 이것은 當初의 推定財務表와 같은 것이었으므로 그토록 마음쓸 일이 아니며, 85年度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회복이 推定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3年前半期에는 그토록 필요는 없었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에서 土地購入에 投資를 했는데, 이때는 全額을 借入金으로 해서 3,500坪을 구입했다. 물론 이와 같은 결정이 잘못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賣却하기로 했으나, 願買者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1年半을 소요했으며, 그 사이에는 金利負擔과 借入金返済에 적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되어서 1983年度의 決算에서는 財務點이 23點으로 떨어졌으며, 綜合點도 50點 정도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1984年度後半에는 賣却資金으로 借入金을 一括返済할 수가 있어서 財務點만은 29點으로 1981年度와 비슷하게 회복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效率點과 業績點은 회복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前年度 보다는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5年度의 決算에서는 人件費效率을 제외한 全項目에서 上昇勢를 보여서 綜合點에서는 60點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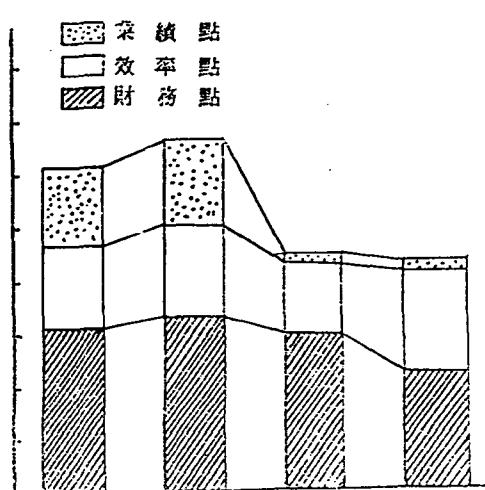
### 3-2. 業種內의 評價比較

그림 10은 A社의 競爭企業이라고 볼 수 있는 2個社에 대한 評價인 것이며 1985年度 決算期에 있어서 3個社와 本稿가 假說한 經營指標에 의한 同業種 全國平均과를 비교해 본 것이다.

B社는 上場企業 2個企業이 出資하고 있는 會社이며, C社는 全國에서도 中堅級에 해당하는 企業의 子會社인 것으로 設定해 보았다.

이 設定에 입각해서 評價項目을 찾어보면 流動比率點은 A社가 최고로써 5.9點인데 대해서 최저는 B社의 5.3點으로 되어 있다. 當座比率點에 있어서는 A社가 10點인데 대해서 B社는 8.7點이고, 固定比率에 있어서는 A社, B社가 다같이 10點으로 같으며, 自己資本比率點은 B社가 10點인데 대해서 C社는 4.4點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財務點은 自己資本比率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B社가 34點으로 優位에 있으나, 나머지는 A社・B社의 순서로는 되어 있으나, 이들 3個社는 다같이 全國平均보다는 7點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한편 總資本效率點에 있어서는 A社는 5.3點인데 대해서 B社는 3.3點이고, 他人資本效率點에서는 A社가 3.6點인데 대해서 C社는 2.8點이다. 人件費效率點에 있어서는 B社가 7.8點인



區分	企業別評價點				
	會社名	A社	B社	C社	平均
流動比率點	5.9	5.3	5.5	5.6	
當座比率點	10.0	8.7	9.7	8.3	
固定比率點	10.0	10.0	10.0	5.7	
自己資本比率點	5.4	10.0	4.4	3.2	
財務點	31.3	34.0	29.6	22.8	
總資本效率點	5.3	3.3	4.4	5.6	
他人資本效率點	3.6	3.5	2.8	3.4	
人件費效率點	6.3	7.8	5.3	6.6	
效率點	15.2	14.6	12.5	15.6	
總資本利益率點	4.3	4.2	1.1	1.1	
賣上高利益率點	1.5	2.3	0.3	0.5	
經營安全率點	7.9	10.0	0.7	2.0	
業績點	13.7	16.5	2.1	3.6	
綜合點	60.2	66.1	44.2	42.0	

그림 10 企業別比較表(資料)

때 대해서 C社는 5.3점이고 效率點에 있어서는 A社가 15점, B社, C社의 順으로 되어있다. 이들 3個社의 效率點은 全國平均에 비해서는 적으나마 밀들고 있다.

또 總資本利益率은 A社의 4.3점에 대해서 C社는 1.1점이다. 實上高利益率點에 있어서는 B社가 2.3점인데 대해서 C社는 불과 0.3점이며, 經營安全率點에서는 B社가 10점인데 대해서 C社는 0.7점이다. 따라서 業績點에 있어서는 B社가 16점으로 최고이며, A社가 다음이고 C社는 겨우 2.1점이나, C社의 경우는 全國平均 보다도 1.5점이나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綜合點에 대해서 觀察해 보면 業績點에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B社가 66점으로 標準的인 企業水準 보다는 上位에 있으며 A社는 그의 中位 정도를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해서 C社는 要努力企業의 範疇에 속하고 있다.

이 業界의 現狀은 상당히 락막한 편인데, 全國平均은 3個社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C社의 綜合點 보다도 2.2점정도 밀들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事例만이 아니라, 다른 企業들의 事例를 통해서 보드라도 企業의 綜合評價點에 대한 良否는 經濟環境에支配된다기 보다는 經營方針이나 經營者의 能力如何가 크게 作用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企業은 곧 經營者라고도 말해 볼 수 있다.

#### IV. 結論

이상에서 論考된 企業評價技法을 통해서 自社의 推移, 즉 自己比較를 觀察하는 것에 의해서

成長可能性을 探知해야 하는 등시에 競爭會社와의 比較, 즉 相互比較라든가 全國平均과의 比較 즉 標準比較를 통해서 自社의 可能性和 脆弱點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또 파악된 特征적인 가능성을 다시 伸張시킴으로써 脆弱點을 改善해 질 수 있는 目標值를 設定할 수가 있어서 新事業年度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未來計劃까지도 가능하게 되어서 經營合理화의 방향이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經營分析은 단순히 지난날과 같이 財務諸表의 分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未來設計를 위한 分析評價하는데 그 價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機能이 展開되어서야 비로소 企業體質의 改善이 이룩될 것이다.

이와 같은 뜻에서 本稿는 經營計劃의 策定과 그의 目標設定을 위한 企業評價技法으로서 論考된 것이다.

#### 引用 및 參考文獻

- 1) 李根熙 著 工場管理의 理論과 診斷, 1964, 東明社
- 2) 李根熙 著 經營分析의 原理와 實務, 1964, 東明社
- 3) 李根熙 著 最新工業經營學, 1964, 文運堂
- 4) 李根熙 著 生產管理, 1963, 東明社
- 5) Wall, A.; Ratio Analysis of Financial statements, on Explanation of a Method of Analysing Financial statements by the use of Ratio, 1928, Harper.
- 6) Thurston, J.B.; Internal Auditing A New Management Technique, 1943.
- 7) 千坂宰太 著 經營入門, 1957, ダイヤモンド社
- 8) 李根熙 著 價值工學의 理論과 實際, 1984, 韓國放送事業團
- 9) 李根熙 著 原價計算, 1962, 一潮閣
- 10) 李根熙 著 工業會計의 理論과 實務, 1963, 東明社